느티나무 고목과 함께 자라는 음나무

지정번호	예천-11-27-5
지정년도	1972
관리기관	예천
수령	310년
수고	18m
흉고둘레	5.3m

경북 예천군 은풍면 은산리 184-1

36˚45′59.47″N
128˚27′05.63″E

커다란 느티나무와 함께 작은 숲을 이루는 보호수(예천-11-27-5) 음나무는 도로와 밭이 접한 곳에 자라고 있다. 옆의 느티나무가 더 높고 넓게 자라고 있으며, 멀리서 보면 음나무와 느티나무가 커다란 하나의 나무처럼 보인다. 음나무의 나이는 310년으로 추정되지만 마을 사람들은 나무나이가 500년 이상이라 일컫고 있다. 나무높이는 18m, 가슴높이둘레는 530cm, 밑동둘레는 785cm 정도이다. 나무갓은 너비가 14m 정도이며, 옆의 느티나무와 맞닿은 가지는 옆으로 퍼지기가 어려운 상태이다. 큰 가지가 부러지는 등의 이상이 있어 외과치료를 많이 받았다. 전승하는 이야기는 풍습이나 민속과 관련한 것이 많다. 음나무는 사악함을 물리치는 벽사辟邪의 기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시가 있는 가지를 대문이나 문설주에 얼기설기 걸어두면 나무의 날카로운 가시에 옷깃이 걸릴 것을 두려워한 잡귀나 귀신들이 집안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믿었던 것이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잡귀의 침입과 전염병으로부터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목으로 귀하게 여겼다. 또한 오월 단오 때가 되면 새끼를 꼬아 그네를 매었지만 1959년 사라호 태풍으로 그네를 매던 큰 가지가 부러진 후부터 이곳에서 그네뛰는 풍경이 사라졌다. 음나무는 바로 옆에 자라는 커다란 느티나무와 맞닿아 그늘 면적을 넓이고 있어 마을 사람들과 길손들의 시원한 쉼터이다. 그러나 이곳에서 쉬더라도 예전의 그네 뛰는 모습을 보면서 느껴지는 감정과는 사뭇 다르다고 주민들은 입을 모았다. 은산리 서사마을 주민들은 보호수 주변으로 논밭을 정리하다 보면 깨진 기왓장을 많이 볼수 있다고 했다. 이는 장터거리였던 이곳에 6·25한국전쟁 당시 수많은 포탄이 떨어져 쑥대밭이 되었음을 증명하고 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데도 음나무가 죽지 않고 살아남은 것이 신기하다고 말했다. 음나무 아래에는 독립만세운동비와 공덕비 4기가 함께 세워져 있다. 독립만세운동비는 은산리의 마을 장터에서 벌어진 독립만세운동을 기념하는 비석이다. 그 옆에 2기의 선정비와 2기의 영세불망기가 나란히 서 있다.